

새내기 트리오 싱그러운 전쟁

KLPGA 황유민·방신실·김민별 역대급 경쟁 갈수록 뜨거워 장타에 국대 출신... 흥행 주도

2023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무대는 신인들의 역대급 경쟁이 한창이다. 2003~2004년생인 이들의 뜨거운 '셋별 전쟁'은 점입가경이다. 겁 없는 세 루키가 쟁쟁한 언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팬들로서는 볼거리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 대표로 활약하다 올시즌 KLPGA 무대에 데뷔한 황유민, 방신실, 김민별이 주인공이다.

9일 끝난 KLPGA 투어 2023 대우위니아-MBN 여자오픈은 이들 삼총사의 활약이 돋보였던 대회였다. 황유민(20)이 연장 접전 끝에 절친인 김민별을 제치고 최종합계 13언더파 203타로 우승했다. 준우승은 김민별(19)이 차지했다. 방신실(19)은 2타 차로 4위에 올랐다. 신인 삼총사가 모두 상위 5위 안에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LPGA투어 장타 1위인 방신실은 이번 대회에서도 평균 272.99야드로 장타 1위를 기록했다. 장타 3위 황유민도 이번 대회에서 2위(265.21야드)를 차지했다. 방신실은 88.89%의 그린 적중률을 선보였고, 퍼팅이 장점인 황유민은 평균 1.5번의 퍼팅으로 우승까지 차지했다. 만능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민별은 6월 DB 한국여자오픈

에 이어 두 차례 연장전에서 모두 패하는 아픔을 맛봐야 했다.

163cm의 크지 않은 체구의 황유민은 지난해 아마추어 세계랭킹 3위까지 최고 유망주다. 프로 데뷔 이후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이번 대회에서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첫 우승을 차지했다. 아직 우승을 신중하지 못하고 있는 김민별은 14번의 대회에서 상위 10위에 6번이나 드는 꾸준함을 자랑했다.

이들 삼총사는 모두 장타력을 장착했다. 174cm의 큰 키에서 뿔어져 나오는 장타가 일품인 방신실은 261.97야드로 KLPGA 비거리 여왕에 올라 있다. 방신실은 대회 1라운드에서 7타를 줄인데 이어 최종 3라운드에서 6타를 줄여 4위까지 점프하는 뒷심을 펼쳤다. 황유민은 드라이버 비거리 2위(256.39야드), 김민별은 10위(250.19야드)에 올라 있다.

황유민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포인트 310점을 얻어 신인상 포인트에서 1위(1445점)로 뛰어올랐고 김민별(1412점)과 방신실(1015점)이 2~3위를 잇고 있다. 올시즌 초 드림투어에서 활약했던 방신실은 5월 E1 챔피언스에서 우승하며 정규투어에 들어왔기 때문에 신인상 포인트가 낮다.

절친 관계인 이들 삼총사의 경쟁은 올시즌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앞치락뒤치락할 이들의 루키전쟁에서 누가 최후에 과연 웃을지 흥미를 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EPL 베테랑' 풀백 영 에버턴행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애스턴 빌라의 베테랑 풀백 애슐리 영(38·사진)이 에버턴으로 이적할 전망이다. 영국 BBC는 "애스턴 빌라와 계약이 만료된 영이 에버턴 입단에 합의하고 메디컬 테스트를 받는다"고 11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영은 프로 20년 차의 베테랑이다. 윗퍼드에서 프로로 데뷔한 그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에서 뛰었다. 2012년까지 맨유에서 활약한 박지성과 주전 경쟁을 펼



치기도 했다. 맨유에서 EPL과 잉글랜드축구협회 FA 컵 우승, 인터콘티넨털에서 이탈리아 세리에A 우승을 경험한 영은

2021년 애스턴 빌라로 복귀해 57경기를 소화하며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다.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39경기에 출전해 7골을 터뜨렸다. 영은 에버턴이 손 다치 감독 체제에서 처음으로 영입하는 선수다.

김경준 기자 mjkim@skyedaily.com

황유민

2003.04.17

상금 2억9419만 원 14위

2023.07 대우위니아-MBN 여자오픈 우승

06 DB그룹 제37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9위

04 롯데렌터카 여자오픈 36위

방신실

2004.09.25

3억5183만 원 8위

2023.07 대우위니아-MBN 여자오픈 4위

06 DB그룹 제37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25위

05 제11회 E1 챔피언 오픈 우승

김민별

2004.01.24

3억6909만 원 7위

2023.07 대우위니아-MBN 여자오픈 2위

06 DB그룹 제37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2위

04 롯데렌터카 여자오픈 6위

'당구 황제' 쿠드롱... 상금 10억 원 시대 활짝

'당구 황제' 프레데리크 쿠드롱(벨기에)이 프로당구 PBA에서 상금 10억 원 시대를 열어젖혔다.

쿠드롱은 10일 경기도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끝난 프로당구 2023~24시즌 2차 투어 '실크로드 & 안산 PBA-LPBA 챔피언십' PBA 결승에서 비틀 위마즈(튀르키예)를 세트 점수 4-1(15-13 15-3 15-5 13-15 15-11)로 가볍게 제압했다. 우승상금은 1억 원이다.

프로 당구 다섯 시즌 동안 30개 투어에서 8차례 촉배를 든 쿠드롱은 자신이 보유한 PBA 최다 우승 기록을 하나 더 경신했다. 또 결승에 오른 8번 모두 우승 샴페인을 터뜨려 '결승 불패' 기록도 이어갔다.

아울러 지금껏 받은 우승 상금 9억 9450만 원에 성적에 따른 대회 보너스를

PBA 최다 8승 촉배... 불패 신화 이을지 주목



프로당구 PBA에서 쿠드롱이 상금 10억 원의 시대를 열었다.

합쳐 공식 상금을 10억2850만 원으로 불러 PBA 출범 다섯 시즌 만에 10억 원 시대를 열어젖힌 첫 선수가 됐다.

쿠드롱은 투어 대회마다 한 경기에서 가장 높은 에버리지를 기록하면 받는

PBA 상금랭킹 2위는 6억5400만 원을 번 스페인의 강호 다비드 사파타다.

쿠드롱은 1세트에서 4-10으로 끌려가다가 7이닝에서 하이런 8점을 몰아쳐 14-11로 전세를 뒤집고 기선을 제압했다. 2세트에서는 7이닝 만에 15점에 도달한 뒤 3세트를 4이닝 만에 끝내 우승에 성공 다다갔다.

쿠드롱은 5세트에서 한 번에 9점을 몰아쳐 30이닝 만에 12득점을 올리고 위마즈의 전의를 상실케 했다.

이번 투어 웰벵토펙킹 보너스는 64강전에서 김정호를 상대로 에버리지 3.214를 기록한 하비에르 팔라존(스페인)에게 돌아갔다. 팔라존은 128강전에서는 3세트에서 한 번에 15점을 뽑아 TS삼푸 퍼펙트큐도 받고 특별상도 휩쓸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코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